

중년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미옥^{1*}

¹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the Sexu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Miok Kim^{1*}

¹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중년 여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에 걸쳐 국내 4개 도시에 거주하는 40세-60세의 중년여성 12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교육 수준이 중년 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성기능 정도와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경우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경우에 성만족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73%가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 여성이 발달적, 상황적 변화에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성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년 여성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인식이 부족함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은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 관련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Sexual satisfaction depends a lot of various factors. Th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middle-aged women's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and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sexual satisfaction. As a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data was collected during Oct. in 2012 to Jan. in 2013 from 126 middle-aged women in Korea.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were averaged 25.02 (range of score 2~36), 3.12 (out of 5), and 2.36 (out of 4), respectively. Sexual satisfac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xual function and sexual communication.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last formal education were influencing factors on sexual satisfaction. Sexual satisfaction of middle-aged women was considered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Nurses should become aware of the wider consideration that need to be made in relation to the general and sexual quality of life when caring for middle-aged women.

Key Words : Communication, Marital Intimacy, Marital satisfaction, Sexual satisfac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성은 인간 삶의 질과 만족의 중요한 부분으로[1], 인간의 성은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대인관계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2]. 특히 여성의 성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삶의 맥락의 총체적 경험이므로 주관적인 성적

경험을 중요시하고 성을 여성 건강의 총체적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3]. 성만족은 성적 관계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부터 발생하는 감정적 반응이며, 전반적인 성적 관계의 긍정적 평가로[4], 여성에게 있어 성만족도는 삶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특히 중년 시기의 여성은 폐경, 갱년기 증상 등 노화에

*Corresponding Author : Miok, Kim(Namseoul Univ.)

Tel: +82-41-580-2716 email: aprilsea@nsu.ac.kr

Received September 24, 2013

Revised (1st November 8, 2013, 2nd January 8, 2014)

Accepted January 9, 2014

따른 신체적 변화와 함께 배우자의 은퇴, 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6]. 여성이 중년 시기의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이해와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정서적 위기의 식으로 인한 의욕감퇴, 기분변화, 정서적 불안정, 기억력 감퇴, 자아존중감의 상실, 불안, 우울 등의 정신신체질환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며[7], 성욕감퇴로 인한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하는 등 여성 삶의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성기능은 성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8,9], 성기능 장애는 해부생리학적, 정신심리학적 원인으로 성반응 단계 중 어느 단계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유발된다[10]. 즉 당뇨병, 심장병, 신경학적 질환, 호르몬 불균형, 폐경, 신장질환과 간부전과 같은 만성질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의 신체적·의학적 컨디션은 성적 욕구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불안, 성적 행위에 대한 염려, 결혼 생활 문제 및 관계적 문제, 우울, 죄책감, 과거에 성과 관련된 정신적 충격 등의 심리적 문제의 결과와[11] 중년기의 위기감에 의해서도 성기능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12]. 미국의 경우 대략 여성의 40% 정도에서 성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12%가 성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그러나 보고되고 있는 성기능 문제의 대부분이 치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조차 성기능 문제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에서도 여성 성기능 장애의 치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여성 홀로 고통 받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14]. 특히 기혼 여성의 성기능 장애는 우울증, 부부간의 갈등,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으로 인한 가정적, 사회적 고립 현상을 야기하는 등 여성의 삶의 질과 건강에 다양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지닌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의학적·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한편, 부부간의 성적대화는 성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Brentton[15]은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성 문제가 시작된다고 지적하며 부부간 의사소통을 강조하였으며,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성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상대의 요구를 확인하고 충족함으로써 성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16]. McDowel[17] 또한 성생활에서 상대방에 대한 언어적 지지와 격려, 이해 등이 필요하며 부부 상호간의 개방적이고 진실하며 분명한 의사소통이 성 만족도를 높여 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만족 관련 연구는

주로 성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성지식, 성태도와[18-21] 성적 행위의 물리적 횟수와와의 관계를 평가한 성행동과의 관계를 측정한 연구[22]가 주를 이루었으며, 질병 상황에서의 환자의 성 만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8,23].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이 심리적 측면의 변수가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제 여성의 성기능과 성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성의 성만족에 있어 성기능과 성 관련 의사소통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여성 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여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성만족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중년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중년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중년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를 측정하고 그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descriptive correlation study)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4개 도시에 거주하는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표준진단지침에서 제시한 중년기의 기준에 의거하여 40세~60세 사이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여 Cohen [24]의 power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분석에 사용될 통계적 검정법에 따라 적정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beta$) 80%, 중간 효과 크기(f) 0.15, 예측변수 11개를 가정하여 양측검정 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 대상자는 123명이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48부 배부를 목표로 하였다.

연구기간동안 본 연구에 참여한 150명 중 설문지를 불충분하게 작성하거나 혹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작성 오류로 인해 제외된 9부, 지난 1개월 이상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5명을 제외한 126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적정 대상자에 다소 부족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크기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실제 효과 크기는 1.38, 검정력 80%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표본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3 연구도구

2.3.1 성기능

여성 성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Female Sexual Function Index(FSFI)는 Rosen 등[25]이 개발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도구관리자에게 도구 사용의 허가를 받아 연구자가 직접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FSFI는 성적 욕구, 성적흥분, 윤활액, 오르가즘, 만족도 및 통증의 6가지 하부영역, 총 19문항의 의문문으로 각 문항은 '지난 4주 동안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0점을 포함하여 '거의~ 또는 매우 낮다' 1점에서 '항상~ 또는 매우 높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총점은 각 하부영역의 요인값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성적 욕구 0.6점, 성적흥분 0.3점, 윤활액 0.3점, 오르가즘 0.4점, 만족도 0.4점 및 통증 0.4점으로 제시된 요인량을 고려한 도구의 총점범위는 2.0~36.0점이다.

본 도구는 총점 26.55점 이하인 경우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며,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 .9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로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2 성 의사소통

부부의 성 의사소통 정도는 Lee[26]가 Hudson, Harrison와 Crosscup[27]의 ISS (index of sexual satisfaction)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개발한 성생활 불만족도 측정 도구 20개 항목의 부부 성생활 의사소통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성생활 불만족도 측정 도구의 각 항목마다 부부가 얼마만큼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묻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성 의사소통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Lee[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 .98, 본 연구에서 .97이었다.

2.3.3 성만족

성만족 정도는 Kim, Chang과 Kang[19]이 개발한 여성의 성만족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도구는 4점 Likert 척도의 총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만족이 높음을 의미하며,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값 .91,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2012년 10월 22일부터 2013년 1월 7일에 걸쳐 연구자가 해당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고 수거하였으며,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며 익명성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기술 통계하였다.
- 2) 대상자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와 그 차이는 평균 및 표준편차,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과 성만족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 5) 대상자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승인을 얻었으며, 본 연구자가 직접 개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다음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 중간에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는 비밀로 유지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2.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여 진행된 제한점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기혼 중년여성은 평균 47.68세로 40-49세가 60.3%, 50-60세가 39.7%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65.9%, 없는 경우가 34.1%로 조사되었으며, 대상자와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인 경우가 각각 76.2%, 59.5%로 많았다. 월평균 수입은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75.4%로 많았으며,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55.6%로 직업이 있는 대상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91.3%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8.7%가 이혼이나 사별이 아닌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97.6%, 결혼기간은 20년 이상이 65.1%, 10-20년이 23.8%, 1~10년 이하가 11.1% 순으로 나타났다. 월경을 규칙적으로 하는 대상자가 54.8%, 불규칙적인 경우가 22.2%, 폐경상태인 경우가 23.0%로 조사되었으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36.5%, 없는 경우가 63.5%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6)

Characteristics		n	%
Age (years)	40-49	76	60.3
	50-60	50	39.7
Religion	Yes	83	65.9
	No	43	34.1
Last formal education (Subject)	High school or lower	96	76.2
	College or higher	30	23.8
Last formal education (Spouse)	High school or lower	75	59.5
	College or higher	51	40.5
Monthly Income	< 3,000,000 won	31	24.6
	≥ 3,000,000 won	95	75.4
Employment	Yes	56	44.4
	No	70	55.6
Live with spouse	Yes	115	91.3
	No	11	8.7
Duration of marriage (years)	<10	14	11.1
	10-20	30	23.8
	>20	82	65.1
Having children	Yes	123	97.6
	No	3	2.4

Menstruation state	Regulation	69	54.8
	Irregularity	28	22.2
	Menopause	29	23.0
Having chronic disease	Yes	46	36.5
	No	80	63.5

3.2 대상자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

대상자의 성기능 정도는 25.02점(점수범위 2~36점)으로 나타났으며, FSFI에서 제시한 성기능 장애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성기능 점수 26.55이하인 대상자는 7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성 의사소통 정도는 3.12점(점수범위 1~5점), 성 만족도 2.69점(점수범위 1~4점)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Table 2].

[Table 2]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of Subjects (N=126)

	Range of score	Mean±SD	n(%)
Sexual Function	2~36	25.02±4.03	
	Sexual dysfunction	>26.55 ≤26.55	34(27.0) 92(73.0)
Sexual Communication	1~5	3.12±0.79	
Sexual Satisfaction	1~4	2.69±0.64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기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나이($t=3.027, p=.003$), 전체수입($t=-3.087, p=.002$), 월경상태($F=6.226, p=.003$)로 나타났다. 나이는 적을수록 성기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 평균수입은 300만원 이하 22.21점, 300만원 이상 24.68점으로 전체수입이 많을수록 높았다. 또한 월경상태는 규칙적(25.07점), 불규칙적(23.07점), 폐경상태(22.11점) 순으로 성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사소통 정도는 나이($t=3.611, p=.000$), 교육수준($t=-2.210, p=.027$), 전체수입($t=-2.513, p=.013$), 월경상태($F=4.49, p=.01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나이가 적을수록 높고, 고졸이하 3.04점, 대졸이상 3.40점으로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수입은 300만원이하 2.82점, 300만원이상 3.22점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경상태는 규칙적(3.28점), 불규칙적(3.11점), 폐경상태(2.76점)순으로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26)

	Categories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Sexual Satisfaction		
		Mean±SD	t / F	p	Mean±SD	t / F	p	Mean±SD	t / F	P
Age (years)	40 ~ 49	24.92±3.73	3.027	.003	3.32±0.84	3.611	.000	2.79±0.65	2.297	.023
	50 ~ 60	22.79±4.09			2.82±0.62			2.53±0.60		
Religion	Yes	23.83±4.06	-9.40	.349	3.14±0.73	.245	.807	2.71±0.61	.544	.587
	No	24.54±3.89			3.10±0.91			2.64±0.71		
Last formal education (Subject)	High school or lower	23.98±4.09	-.464	.643	3.04±0.75	-2.210	.027	2.59±0.60	-3.059	.003
	College or higher	24.37±3.73			3.40±0.88			2.99±0.68		
Last formal education (Spouse)	High school or lower	24.32±4.30	.829	.408	3.31±0.71	.072	.943	2.72±0.57	.813	.418
	College or higher	23.72±3.52			3.12±0.91			2.63±0.74		
Monthly Income	< 3,000,000 won	22.21±3.90	-3.087	.002	2.82±0.85	-2.513	.013	2.45±0.80	-2.328	.022
	≥ 3,000,000 won	24.68±3.86			3.22±0.75			2.76±0.56		
Employment	Employed	23.38±3.68	-1.763	.080	3.06±0.74	-.740	.461	2.66±0.57	-.374	.709
	Unemployed	24.63±4.18			3.17±0.84			2.70±0.69		
Live with spouse	Yes	24.21±3.98	1.264	.209	3.12±0.80	-.214	.831	2.68±0.64	-.106	.916
	No	22.62±4.09			3.17±0.81			2.71±0.72		
Duration of marriage (years)	< 10	23.65±4.11	.803	.450	3.15±0.73	1.655	.192	2.61±0.70	.532	.588
	11 ~ 20	24.88±3.47			3.35±0.88			2.79±0.71		
	> 21	23.85±4.16			3.04±0.77			2.66±0.61		
Having children	Yes	24.08±4.02	.084	.933	3.14±0.79	-.531	.128	2.68±0.65	-.329	.742
	No	23.88±4.03			2.43±0.40			2.81±0.13		
Menstruation status	Regular	25.07±4.04	6.226	.003	3.28±0.87	4.49	.013	2.79±0.70	2.148	.121
	Irregular	23.07±3.64			3.11±0.79			2.63±0.57		
	Menopause	22.11±3.51			2.76±0.64			2.50±0.52		
Having chronic disease	Yes	23.16±2.91	1.979	.050	2.99±0.64	1.44	.150	2.54±0.58	1.975	.051
	No	24.60±4.44			3.20±0.87			2.77±0.67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만족 정도는 40~49세가 2.79점, 50~60세가 2.53점으로 나이는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하 2.59점, 고졸이상이 2.99점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 이하 2.45점, 300만원이상 2.76점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과의 관계

중년여성의 성만족은 성기능($r=.639, p<.001$), 성 의사소통($r=.671, p<.001$)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의사소통 정도가 상승할수록 성기능이 상승하여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521, p<.001$)[Table.4].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xual Function,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N=126)

	Sexual Communication	Sexual Function
	r (p)	r (p)
Sexual Satisfaction	.639 (<.001)	.671 (<.001)
Sexual Communication		.521 (<.001)

3.5 대상자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년여성의 성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변량분석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어 차이가 난 연령, 교육수준 및 수입과 성기능, 성 의사소통 을 다중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중년여성의 성기능의 공차한계 범위는

.45~.87, 분산팽창계수가 1.22~1.56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년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기능($\beta = .47$), 성 의사소통($\beta = .36$), 대상자의 교육수준($\beta = .17$) 순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성만족 영향 요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 ($F=59.559$, $p<.001$), 설명력은 58.4%이었다[Table 5].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on Sexual Function (N=126)

	B	β	t	p	R ²
Sexual Function	.076	.473	7.047	<.001	58.4
Sexual Communication	.295	.365	5.335	<.001	
Last Formal Education (Subjects)	.264	.174	2.956	.004	
Constant=-.399, F(p)=59.559 (<.001)					

4. 논 의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년 여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성만족 정도는 2.69점(점수 범위 1~4점)으로 중간정도의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20~5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성만족 정도를 측정한 Kim[22]의 3.2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은 경우에 성만족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Abdo, Oliveria, Moreira, & Fittipaldi[12]와 Kim[22] 또한 성만족 정도는 연령에 부적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규칙적 월경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의 성만족 정도가 높아 여성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가 성만족 정도에 영향함을 알 수 있었다.

Hong[28]은 성만족은 사회경제적인 안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만족 정도는 수입이 높은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만족에 경제적 수준 정도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장순복과 Lee[29]는 성만족이 수입에 영향을 받는 이유를 사회경제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수입이 낮은 사람에게 있어 경제적 문제가 생활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될 경우 성만족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즉, 성 관련 지표들은 사회경제적 안정 상태에서 보다 긍정

적인 정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년 여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이들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완화를 돕는 중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 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성기능 정도는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성기능이 중년여성의 성만족에 영향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만족과 성기능 정도에서 정적상관관계를 보고 한 Aslan 등[3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Yang, Hwang과 Park[31] 또한 일반 여성의 성기능 저하를 의미 있게 예측해준 요인으로 성의 중요도를 보고하면서 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하였다. 여성의 성기능은 신체적, 심리적 요인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중년의 여성에게 있어 성은 흥미의 대상이기보다 친밀감의 행위로 인식되므로, 성을 중요시 하고 상대방의 성적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중년 시기의 적절한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중년 시기에 성기능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신체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물리적 치료행위에 더불어 건강한 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중재가 통합될 때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기능은 25.02점(점수범위 2~36점)으로 FSFI에서 26.55점보다 낮은 경우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제시 기준에 따라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기능 장애 정도를 측정된 Park, Cho와 Kim[32]의 23.50점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기능 정도가 26.55점 이하로 측정되어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상자는 92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Park, Cho와 Kim[32]에서의 67%, 20~40세 일반 여성의 성기능 장애 유병률을 측정된 Yang, Hwang과 Park 등[31]의 42.9%에 비해 높아 중년 여성에게서 성기능 장애 유병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성기능 장애는 기혼 여성에게 있어 우울증, 부부간의 갈등,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으로 인한 가정적, 사회적 고립 현상을 야기하고 등 여성의 삶의 질과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성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지닌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의학적·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50대 여성의 성기능이 40대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기능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냄을 보고한 Park, Cho와 Kim[32]과 Yang,

Hwang과 Park[31]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는 Bae[14], Abdo, Oliveria, Moreira와 Fittipaldi[12]와 Park, Koo와 Won[33]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Park, Koo와 Won[33]은 연령에 따른 성기능의 차이를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질의 위축과 질 분비물 감소 등의 노화와 폐경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의 결과로 보고하였으며, Blumel 등[34]도 폐경을 성기능 장애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Kim[35]은 이러한 이유를 폐경 후 여성들이 스스로 성적인 매력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중년 여성의 성기능 정도는 월 평균 수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이 많을수록 성기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Park, Koo와 Won[3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여성의 성기능이 비단 신체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사회경제적 상태가 성만족에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유무가 성기능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Bae[14]에서는 신체적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대상자의 성기능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 신체적 상태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대상자의 성기능은 최대 34.80점, 최소 15.24점으로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므로 성기능과 관련된 간호중재 계획 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성 의사소통 정도는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Ko[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Song[16] 또한 성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부간의 성적대화를 보고하였으며,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성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상대의 요구와 바램을 확인하고 충족함으로써 성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부부간의 적극적인 성 의사소통은 부부 서로에게 상대방의 성 심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성만족의 긍정적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성 의사소통 정도는 3.12점(점수범위 1~5점)으로 연령이 낮고 규칙적 월경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높았다. 이는 연령이 낮고 규칙적 월경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성만족 정도가 높았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여성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사회적 상태가 부부간의 성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수입이 많은 경우에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부부의 성 의사소통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 의사소통 정도는 성만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성문제에 대한 논의가 성만족과 강한 정적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한 Ko[18], Ashdown, Hackathorn과 Clark[36], Kim[22], Kim[37], Song[1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Song[38]은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들은 성적인 문제를 남편과 원활히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뿐 아니라, 혼자 어려움을 해결하지도 못하여 부부간에 성문제로 인한 갈등 유발 시 해결방안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갱년기 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년기 부부관계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년기 부부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Means[39]은 부부의 성은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도모하는 관계적 기능, 즉 성생활을 통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진단하는 바로미터(barometer)의 기능과 부부의 결속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였다. 더불어 중년 시기의 발달적, 상황적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원활한 소통과 삶의 만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을 삶의 만족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부부가 인식하도록 돕고, 성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이 중년 여성의 성만족 정도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인 대상자의 성만족 정도가 높았던 Abdo, Oliveria, Moreira와 Fittipaldi[12], Kim[37]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Kim[37]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성만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성개념 및 성지식과 같은 인지적인 요인이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즉, 교육수준에 따라 자기 주장성, 개방성이 높아져 적극적인 성 의사소통으로 인해 성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Mannila와 Kontula[40]는 성만족을 안정된 관계에 대한 행복감인 정서적 성만족과 성행위에 대한 즐거움인 신체적 성만족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Mannila와 Kontula[40]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 오르가즘의 부재를 보고하였는데 이는 신체적 성만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체적 성만족이 낮은 경우에도 정서적 성만족은 높을 수 있으므로, 향후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성만족의 신체적, 정서적 측면 모두를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은 중년여성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며 여성의 성에 관한 문제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여성의 주관적인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성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중년 여성의 성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이들의 성기능 정도와 성기능 저하의 원인 진단과 함께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부부의 성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함께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중년 여성의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성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중년 여성의 성건강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성기능, 성 의사소통 및 교육 수준이 중년 여성의 성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성기능 정도와 성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경우와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경우에 성만족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의 73%가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년 여성이 발달적, 상황적 변화에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성건강을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년 여성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인식이 부족함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은 여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 관련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J. B. Korda, M. Braun, U. H. Engelmann, Sexual dysfunction at urinary incontinence. *Der Urologe A*, 46, 1058-1065, 2007.
DOI: <http://dx.doi.org/10.1007/s00120-007-1408-4>

[2] M. A. Lamb, Effects of Cancer on the Sexuality and Fertility of Women. *Seminars in Oncology Nursing*, 11, 120-127, 1995.
DOI: [http://dx.doi.org/10.1016/S0749-2081\(05\)80019-1](http://dx.doi.org/10.1016/S0749-2081(05)80019-1)

[3] L. A. Bernhard, *Sexuality in women's lives, women's health care*. Sage publication, 1995.

[4] A. Offman, K. Mattheson, *Sexual compatibility and sexual function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4, 31-39, 2005.

[5] Y. Kim, Y. J. Yoo, A study on the sexual satisfaction of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7(1), 1-18, 2002.

[6] J. M. Park, *The comparison of menopausal syndrome between participation and non participation group of the later period middle-aged women in placenta 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6.

[7] M. S. Hwang, *Therapeutic Counseling of Women's Mid-Life Hypochondriasis through REB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hwa Women University. Seoul. 2003.

[8] S. M. Park, K. S. Kim, Model construction of sexual satisfaction in patients with a colostom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4), 539-548, 2009.
DOI: <http://dx.doi.org/10.4040/jkan.2009.39.4.539>

[9] M. Young, G. Denny, T. Young, & R. Luquis,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American journal Hudson WW, Harrison DF y Crosscup PC (1981). A short-form scale to measure sexual discord women. Journal of Sex Research*, 17, 157-174, 2000.
DOI: <http://dx.doi.org/10.2466/PRO.86.3.1107-1122>

[10] R. E. Hales, S. C. Yudofsky, J. A. Talbott, *Textbook of psychiatry*. 2nd ed. American Washington DC.: Psychiatric Press. 659-665, 1994.

[11] U.S. MedicineNet.com (1996). *Sexual health center; Sexual (sex) problems in women*. Retrieved February 01, 2013, http://www.medicinenet.com/sexual_sex_problems_in_women/article.htm

[12] C. Abdo, W. M. Oliveira, E. D. Moreira, J. Fittipaldi, Prevalence of sexual dysfunctions and correlated conditions in a sample of Brazilian women-results of the Brazilian study on sexual behavior (BSSB), *International Journal of Impotence Research*, 16(2), 160-166, 2004.
DOI: <http://dx.doi.org/10.1038/sj.ijir.3901198>

[13] J. L. Shifren, B. U. Monz, P. A. Russo, A. Segreti, C. B. Johannes, Sexual problems and distress in United States women: prevalence and correlates, *Obstetrics & Gynecology*. 112(5), 970, 2008.
DOI: <http://dx.doi.org/10.1097/AOG.0b013e3181898cdb>

[14] J. Y. Bae, A study on female sexual dysfunction, marital accommodation, depression, and crisis in Korean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3(4), 467-475, 2004.

[15] M. Bretton (translated by M. S. Lee) *Sex communication*, Soft, Seoul: Hanarum, 1994.

[16] Y. G. Song, *A Study on Effects of Sexual Desire*

- Expression and Sexual Performance Anxiety on Sexual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 Centering on Married Couples Residing in Metropolitan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Seoul, 2006.
- [17] J. McDowell, Heterosexuality is the only natural from do sexual expression, In H. Feldman and A. Parroteds. Human Sexuality. Sage Publishers, Inc., 1984.
- [18] J. A. Ko, The Influence of Sexu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and Sex Connected Communication on Marriage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Psychological Therapy: Multidisciplinary approach, 3(2), 75-91, 2003.
- [19] S. N. Kim, S. B. Chang, H. S. Kang, Development of Sexual Satisfaction Measurement Too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27(4), 753-764, 1997.
- [20] J. I. Jeon, The Effects of Sexual Satisfaction Enhancement Program on the Sexu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2011.
- [21] I. S. Lee, J. S. Moon, Knowledge of Sex, Attitude toward Sex , and Sexual Satisfaction in married Women,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Journal of Korean Society Maternal Child Health, 14(2), 396-414, 2000.
- [22] J. Y. Kim, Sexual behaviors and Sexual Satisf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Chonnam, 2005.
- [23] H. J. Ko, H. Y. Kim, Sexual satisfaction and spouse support in middle-aged women with hystrectom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8(1), 65-76, 2004.
- [24]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1988
- [25] R. Rosen, C. Brown, J. Heiman, S. Leiblum, C. Meston, R. Shacsigh et al, The female sexual function index (FSFI): A multidimensional self-report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female sexual functio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26, 191-208, 2000.
DOI: <http://dx.doi.org/10.1080/009262300278597>
- [26] Y.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factors and sexual dissatisfaction of korean urban wiv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5, 155-184. 1990.
- [27] W. W. Hudson, D. F. Harrison, P. C. Crosscup, A short-form scale to measure sexual discord women. Journal of Sex Research, 17, 157-174, 1981.
DOI: <http://dx.doi.org/10.1080/00224498109551110>
- [28] S. S. Hong, The effects of sociotropy-autonomy and sexual satisfaction on female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1.
- [29] S. B. Chang, K. H. Lee, An analytic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for sexual satisfaction in women who have had a hysterectom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 2, 160-172, 1989.
- [30] G. Aslan, H. Koseoglu, O. Sadik, S. Gimen, A. Cihan, A. Esen, Sexual function in women with urinary incontin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Impotence Research, 17, 248-251, 2005.
DOI: <http://dx.doi.org/10.1038/sj.ijir.3901296>
- [31] D. O. Yang, I. S. Hwang, K. S. Park, The prevalence and associated factors of female sexual dysfunction in korean premenopausal women: a community-based study. Korean Journal of Andrology, 30, 57~63, 2012.
DOI: <http://dx.doi.org/10.5534/kja.2012.30.1.57>
- [32] Y. S. Park, I. S. Cho, Y. M. Kim, A survey of urban middle-aged women's sexual function and sexual distres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3, 254-261, 2007.
- [33] H. S. Park, H. Y. Koo, S. H. Won, Sexual funct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women and their predictors. The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13, 4, 505-513, 2004.
- [34] J. E. Blumel, C. Castelo-Branco, M. J. Cancelo, H. Romero, D. Aprikian, S. Sarra, Impairment of sexual activity in middle-age women in Chile. The North American Menopause Society. 11(1), 78-81, 2004.
DOI: <http://dx.doi.org/10.1097/01.GME.0000072481.97324.7F>
- [35] W. H. Kim, Sexual Disorder after Menopause. J. Korea Dr Association. 42(2), 166-171, 1998.
- [36] B. K. Ashdown, J. Hackathorn, E. M. Clark, In and out of the bedroom: sexual satisfaction in the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Integrated Social Sciences, 2(1), 40-57, 2011.
- [37] Y. W. Kim, A Study on the relation among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and the sexu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0.
- [38] A. R. Song, A Study on Management of Menopause of Climacteric Women, The Korean Society of Menopause 3(2), 140-160, 1997
- [39] M. C. Means, An integrative approach to what really want sexual satisfaction. University of Detroit Mercy, 2000.
- [40] E. Haavio-Mannila, O. Kontula, Correlates of increased sexual satisfac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26,

399-419, 1997.

DOI: <http://dx.doi.org/10.1023/A:1024591318836>

김 미 옥(Miok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2009년 8월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전임강사
- 2010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여성건강, 중앙간호